군산지역 동네서점,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변화 모색

한길문고 · 예스트서점 · 우리문고, '2018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 선정

매년 독서량이 떨어지고 인터넷서점 및 대형서점들의 지역진출로 인해 요즘 우리 동네 서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네 서점들이 변화를 모색하며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면서 자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군산지역에 소재한 한길문고와 예스트서점, 우리문고는 '책을 파는 공간에서 문학 공동체' 공간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길문고를 비롯한 두 서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작가회가 운영하는 '2018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거점서점에 작가가 상주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거점서점 15개를 선정하는 사업에 군산의 한길문고와 예스트서점, 우리문고가 2019년 5월말까지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거점서점인 한길문고는 배지영작가가 문학 코디네이터로 상주하며 읽고 쓰고 싶은 사람들의 고민 상담소, 나도 쓸 수 있는 에세이, 북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지역에 소재한 한길문고와 예스트서점, 우리문고는 2019년 5월말까지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배지영 작가는 "문학 코디네이터로 작은 서점의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서점이 책을 파는 공간에서 지역 문학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군산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길문고에서 상주하고 있는 배지영 작가는 우리독립청춘, 소년의 레시피, 서울을 떠나는 삶을 권하다 저자이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대, 미래에셋자산운용 최경주 동문 부회장 선임

전주대는 최경주(무역학과 89년졸) 동문이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경주 동문은 199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자산관리(WM)부문 대표 사장, 미래에셋자산운용 리테일·연금마케팅부문 총괄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경주 부회장은 미래에셋그룹의 창업공신으로 금융상품영업본부장, 기업RM부문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퇴직연금 사업과 법인영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최 부회장은 바쁜 경영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교인 전주대의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기금 기부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류무역학과의 객원교수로 위촉돼 후학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해외현장체험학습에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주대 동문회는 2008년 대기업 CEO로서의 능력과 동문으로서의 애교심을 높이 사 '자랑스런 전주대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제35회 전국 남녀 웅변 · 스피치대회서 이숙자 씨 대상 수상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35회 전국 남녀 웅변·스피치대회가 최근 전주시 덕진구청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와 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전북본부 공동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1월 에너지 절약의 달을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 경제회복, 복지농촌건설, 환경보호 등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 학생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표능력개발에 체험학습으로 올바른 언어능력개발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것.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127명의 연사가 참가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이숙자(58, 남원)씨가 전체대상을 수상했으며, 김충석(인천)씨가 전체특상, 변형만(정읍)씨와 양승범(장수)씨가 전체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김종갑(임실), 김대선(군산), 김학성(전주)씨가 대학일반부 대상을 수상했고, 연귀옥(익산), 남상일(진안), 백미숙(구례)씨가 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재훈 기자

안성청소년문화의집, 2018 무주군 쌍백합 청소년 루미큐브대회 개최

안성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동수)에서는 2018 무주군 쌍백합 청소년 루미큐브대회가 최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열렸다.

무주관내 중·고등학생 을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두뇌스포츠활동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무주군 쌍백합 청소년 루미큐브대회에서는 예선1라운드부터 결승까지 개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1등 안성고 김하나, 2등 푸른꿈고 김현오, 3등 푸른꿈고 이지섭 학생이 수상했다. 또한, 탈락자 청소년을 포함한, 경기신청을 하지 못해 당일 접수한 친구들은 번외경기를 참여해 무주군 청소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6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창소방서, CJ택배 유동운차량 사고자 생명 구한 의인 표창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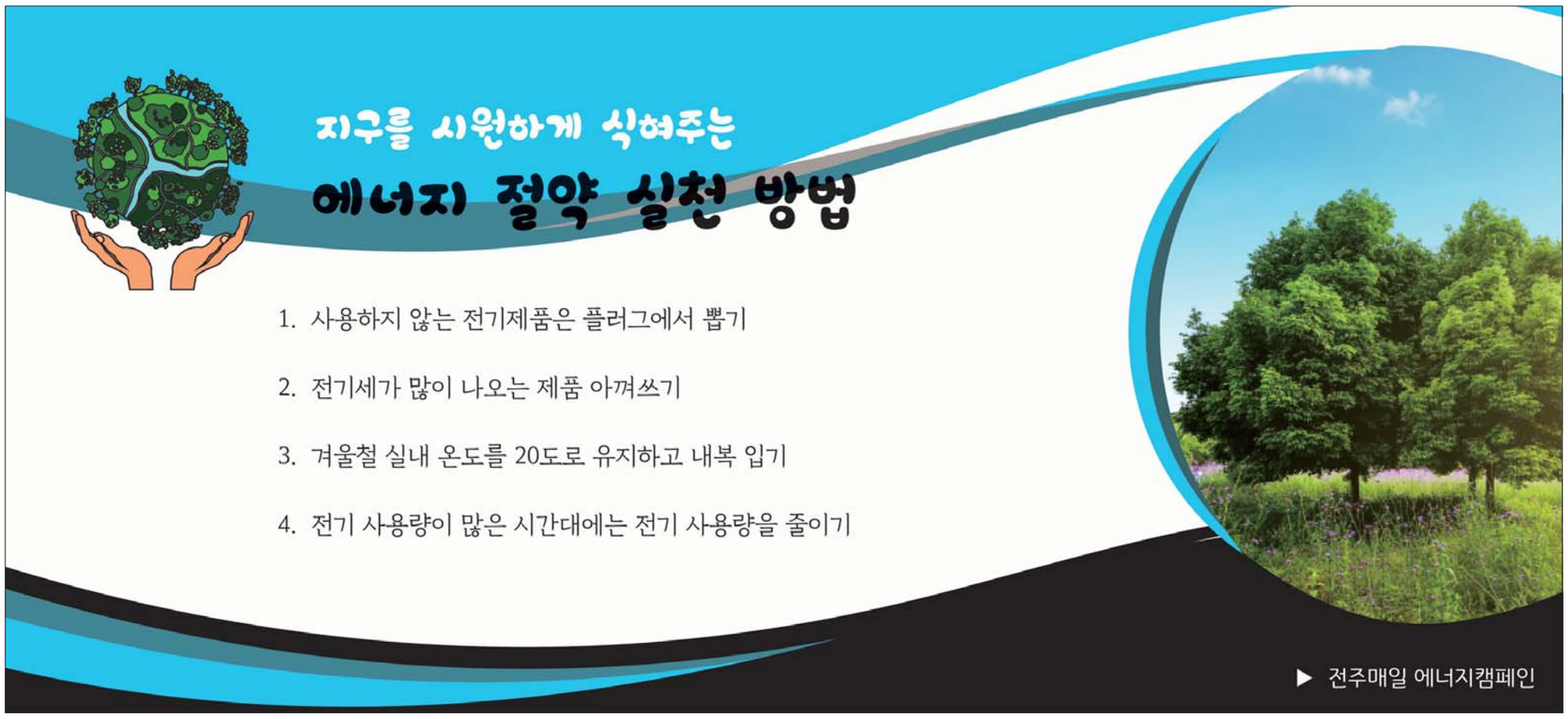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19일 고창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차량사고자 생명을 구한 진정한 영웅 CJ택배 유동운(36)에게 고창소방서장 표창으로 감사를 표했다.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일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 석남교차로 부근 논에 차량이 추락된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화재위험성을 감지하고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안전하게 구조, 차량화재 진압 등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과 함께 끝까지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알렸다.

고창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한 유동운씨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 똑같이 현장에 뛰어들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사자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행복을 지켜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고창소방서장 박진선은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정신을 발휘해 인명을 구조한 살신성인 영웅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선행을 적극 발굴해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 도내 직장테니스대회 단체 우승

전북대학교 직원테니스회(회장 강종균)가 지난 17일 완주에서 열린 제46회 전북도지사기 직장 및 클럽대항 테니스대회에서 단체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20개 직장 및 클럽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는 김제시청과의 첫 경기를 3대 0으로 가볍게 이긴 것을 비롯해 4강전에서 전북도시가스(홍팀)를 만나 2대 1로 승리를 거둔 뒤 결승에서 현대자동차를 2대 0으로 이기며 2년 연속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강종균 전북대 직원테니스회장은 "전북대 직원들의 단합된 힘이 매 대회마다 단체전 우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테니스를 통해 직원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이러한 대회를 통해 전북대의 단합된 힘을 대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